

# “동요,누가누가잘부르나”

## 제1회 일동어린이 동요대회

전교 어린이회가 주최가 되어 교내에서 동요대회를 개최한 학교가 있어 화제다.

일동초교(교장 박한규)는 지난 9일 교내 강당에서 3학년에서 6학년 중 학급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팀들을 대상으로 제1회 전교어린이동요대회를 개최했다.

심사위원으로는 교사위원 서지연, 학생위원 이채영, 전교어린이회장단 강다연 회장, 박민지·박민우 부회장이 참여해 가창력과 무대매너, 호응도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가렸다.

이날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우수상 2팀에게는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장려상 4팀에게는 문구세트 등이 수여됐으며 참가한 학생 전원에게



일동초교 어린이들이 고운 목소리를 뽐내는 자리. (사진은 일동초교 제공) 공책 한 권씩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문지연기자 soma7000@naver.com

# 신나는 여름방학

## 15일 포천고부터 여름방학 시작

다음주부터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모든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포천고교가 가장 이른 15일 방학식을 갖고 영북·일동중고, 동남고, 관인고교가 16일 방학을 실시한다.

중학교는 고교보다 약간 늦다. 경북중, 관인중, 이동중, 일동중이 19일 학기를 마감하고 포천여중, 동남중 등이 뒤를 이으면 영중중이 26일 마지막을 장식한다.

학기 중 단기 방학이 많은 초등학교는 25일을 전후해 방학이 시작된다. 축석초교가 19일, 내촌초·도평초·선단초·화현초교가 23일, 추산초교가 28일 등이다.

개학일은 8월 19일부터 9월 2

일까지 다양하다. 고교 중에서는 동남고가 8월 21일로 가장 빠르며 8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모두 개학한다.

중학교는 일동중학교가 8월 19일, 경북·관인중학교를 비롯해 5개교가 8월 23일에 개학한다. 가장늦게 방학을 실시했던 영중중은 역시 개학도 가장 늦은 8월 27일.

초등학교에서는 축석초교가 8월 23일 가장 먼저 교문을 열고, 대부분 8월 27일과 9월 1일 사이에 개학한다.

초등학교의 방학기간은 평균 35일, 중학교는 31일, 고등학교는 37일 정도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우리시대 청소년 抱川中 우주정보소년단

## “과학자보다는 과학의 生活化 꿈꾼다”

‘우리시대 청소년’은 포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단체나 동아리의 활동상을 소개하는 코너로 학교와 사회, 인터넷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면면을 소개함으로써 우리시대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은 물론 지역청소년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지에 게재될 청소년 동아리나 단체에 대한 추천도 받고 있다. <편집자주>

아이들은 조별로 나눠 방과 후에 과학실에 모여 실험을 하거나 과학활동을 한다. 종이로 항공모함을 만들거나 어보이드(장애물 탐지 로봇), 위킹 로봇 등을 직접 조립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실험이나 과학활동을 통해 뉴턴 법칙이나 항공 역학 등 과학이론이 더 쉽게 습득되는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TV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과학 현상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종종 있어요. 그 때 제가 나서서 가족들에게 원리를 설명해주면 앞에서는 잘난체 한다고 뭐라고 하지만 대견해하는 눈길이지요. 그 때의 뿌듯함이란...”

성준이(3년)가 소년단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때를 얘기한다. 현섭이(3년)는 “비록 실험에 실패해도 재미를 느꼈을 때”라고 덧붙인다. 현섭이는 공중부양팽이를 띄우기 위해 새벽 3시가 넘도록 팽이를 돌린 기억도 떠오르는 듯 했다.

장래희망을 묻자 섣뚱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아이가 드물다. 좋아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볼 때 난관이 많다는 이유다. 이어 아이들은 교육부와 어른들을 상대로 쓴소리를 털어 놓기 시작했다.

“이공계를 장려한다고 말만 하고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토대를 만들어 줄 생각이 전혀 안 한다”라든가 “재정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불만이 이어진다.

아이들의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이광래 교사도 “초등학교에 과학전담교사가 있어 과학이 얼마나 재미있는 학문인지를 깨닫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빨리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거든다.

“하면 할수록 빠져드는 게 과학의 매력”이라는 포천중 우주정보소년단 단원들이 꿈꾸는 세상은 “더 이상 과학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활화되는 것”이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아이들은 오늘도 실험에 실패해 거듭하고 배움에 배움을 거듭해 조금씩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포천중 우주정보소년단 소속 학생들이 과학실에서 천체망원경을 관찰하며 이광래 교사(왼쪽 두번째)로부터 천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윤중성의 미국어 따라하기

※(문어 안 열림)

이 열쇠가 안 맞는 것 같네요.  
I guess, this is the wrong key.  
아이게스디시스터링키

미안합니다. 맞는걸로 지금 곧 갖고 올게요.  
Sorry, I'll go get the right one immediately.  
소리, 아일고겟더화잇윈 이메디에이리

역으로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How do I get the station?  
하유 두아이 겟투더스테이션 ?



이 길로 똑바로 약 5분간 걸어가면 됩니다.  
Walk straight this way for about five minutes.  
웍스츨웨잇디스데이 휘러바우화이브미니스

☞문의:윤중성(017-723-4977)colyoon@nate.com

# 수필가 김창종의 현대시 감상(66) 신탄리 권숙자 (연천문인협회)

물러 일어나도 할 일이 없는

동지 잃은 다람쥐 낮 꿈은 저물고

일수 짝던 햇살은 산모퉁이 돌아선다

산 까치는 회죽 회죽 서낭당을 땀물고

더듬이로 찾아 온 이방인의 차량들

물매미처럼 숲 속을 빠져나가면

머쓱해진 산들끼리 숲잔을 기울이는

변방의 여름밤은 통한으로 일어선다

<감상=해설>

시를 낚는 묘사 시구 즉, 시어(시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시는 생명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

시작 무렵 시인의 시심에는 바로 그 시어 밖에는 쓸 말이 없었다는 점이 창작시의 묘미이고 아름다움이다. 요즈음 새로 어찌 어찌해서 등단한 신인들이 시 낭송회를 찾아다니며 기성 원로 시인들의 시를 얻어다가 짜깁기하여 자작시라고 얽어 내놓는 시집 범람 시대에 권숙자님 같은 참신한 시 작품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머쓱해진 산들은 숲잔을 기울이는

변방의 여름밤은 통한으로 일어선다

시의 종장을 읊노라면 멋스럽고 멋스럽다 못해 무릎을 치게 한다.

흰 수염 날리는 노객인 줄 알았더니 중후하고도 우아한 현숙한 시인이시니 시심의 마음자리에 존경이 앞선다.

연천군은 권숙자 시인이 있기에 그 아름다운 내가 더욱 맑고 고와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필자연락처 02)832-2434

2004. 7. 1 ~ 7. 31 www.nhlc.or.kr

# 사업장 건강보험 자진가입 신고기간

사이버 민원실    공금 하세요    건강 마당

친절한안내, 최선을 다하는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 Introduce Information

※근로자1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건강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으로 해당 사업장 대표자께서는 기한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